

2020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0년 3월 16일(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 (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 (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통화정책방향>

(1) 의장이 긴급발의로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1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위원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0.75%로 낮추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에 변동성이 증폭되었음.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에 악순환적 연계가 상호작용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저해되는 극단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음. 이러한 상황인식이 오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낮추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주요국 중앙은행도 최근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완화기조를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나 재정정책과의 조화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이번에 기준금리를 0%대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면 가계와 기업의 차입비용 경감을 통해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양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려하였던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저금리 부작용이 더 커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기조를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은 주택시장과 외자유출입의 안정을 보다 확고하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음.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그 충격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불과 2~3주 전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태의 전개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극히 높아진 상태임. 이에 대한 최우선 대책은 적극적인 방역이며, 급작스러운 방역업무 폭증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임. 아울러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으로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도 필요함.

그러나 최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코로나19에 직접 노출된 부문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세계적인 이동 제한이 지속되는 한, 그에 따른 공급 측면의 부정적 충격은 불가피하며, 글로벌 경기급락을 통해 수출수요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을 동요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를 위축시킴으로써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즉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시적·부문별 충격만이 아닌 거시적·총수요 충격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이러한 총수요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이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 경제의 기초적 인플레이션이 더욱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고조시킬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일련의 미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 당국과 함께 거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화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금리인하가 경제주체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위기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총수요 측면을 통한 경기 급락의 악순환을 완충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앞으로도 위기국면에서의 통화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2주 간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동아시아에 집중되었던 감염이 전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외 금융불안이 크게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을 논의함에 있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요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피해 부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가 여전히 더 유효해 보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단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첫째, 최근 주요국에서의 신용스프레드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신용경색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제한 등이 최선의 방역책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감염병 확산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회복국면에서의 반등이 과거 사례보다 완만할 수 있기에 중기적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압력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셋째,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 금융상황의 완화정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추경을 위한 채권발행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폭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로 비기축 통화국에서의 정책 신축성(flexibility)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하고 있음. 만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조된다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기보다는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 전망보다 크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경제활동 위축이 생산자본과 노동력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지난 3월 15일에 미 연준이 취한 여러 통화정책 방안과 주요 중앙은행 간의 협의에 따른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국내적으로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사회안전망과 자영

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역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여러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한 도입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재고해야 할 것임.

다만 이런 광범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경로의 치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강화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지난 금통위 회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특히 세계경제 및 금융의 중심축인 미국과 EU에서 확산이 시작됨에 따라 더 이상 국지적인 충격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충격으로 심화된 상태임.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임. 미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안정성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확산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글로벌 경제충격으로 심화됨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대에 따른 제반 글로벌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도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올해 성장과 물가 경로의 대폭 하락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유동성 위험 상승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임. 취약부분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충을 넘어서 과감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함.

이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중국과 우리나라

라 등에 국한하여 나타나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와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가 지난 2월 당행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보임.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금융안정 책무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여겨짐. 다만 앞으로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0.7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3)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 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다수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

(4)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들은 다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임지원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의안 제12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1)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12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기준금리 하향 조정과 병행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금리를 단일화하고, 연 0.25% 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생략)

〈의안 제13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13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필요시 신속한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당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생략)